朝鮮日報
夕刊
四日(日)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濬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林野政策의 緩和
―民間에有用하게開放하라―

一

朝鮮의 林野 總面積은 一千六百四十四萬町步로서 朝鮮 全面積의 七割四分을 占하얏다. 그리하야 般使 그中 二百八十七萬町步가 全然 未立木地라할지라도 立木地가 一千九十二萬町步, 散生地가 二百六十五萬町步이므로 이 林野의 朝鮮에잇서서의 價値는 至大한것이며, 이의 善用與否는 國家 人民에 重大한 關係를 가진것이다.

二

그런데 過去 朝鮮의 林野政策을 보면 果然 民間의 利益을 더만히 念頭에 너헛든가 單純한 林野保護를 爲한 林野政策이엇든가를 疑心할만한 程度이엇섯다.

明治四十一年 朝鮮統監部는 韓國政府에 勸하야 森林法을 發布하야 林野保護取締의 基本을 定하고 또 同法附帶의 處分規則, 部分林規則及 土石採取規則을 發布하야 林野의 保護經營 植林의 獎勵 及 그 產物의 處分에 資하얏다. 그리고 明治四十四年 六月 다시 森林令을 公布하고 또 施行規則을 制定하야 殖林의 普及獎勵및 森林의 保護, 營林監督을 主로하고 아울러 國有林野의 整理及 經營을 다하기를 期하얏스며 나아가 明治四十五年에는 林野의 國有, 私有에 關한 標準을 定하얏다. 그結果 國有林野 五百三十一萬町步 (大正十四年度末 現在), 民有林野 一千百十三萬町步라는 國有林野面積의 엄청난 統計를 보게되엇다.

三

國有林野面積이 이가티 尨大한것은 封山, 禁山이라하야 伐採를 禁하얏던 國有林과 人民의 自由入山을 許하얏든 所謂 公山을 全部 國有林으로 編成하는 外에 民有林野로서 (一)그 林相이 民有로 認定할만한 標準에 達치 못하얏다는것과 (二)寺刹에 緣故를 가진것이라는 歷史의 證明하는바에 依하야 森林法의 規定에 依한 地籍申告를 게을리한것과 (三)右記 又는 必要에 依한것은 國有로 査定한 때문 이엇섯다. 그리하야 이 處分에 對한 不平은 現在도 相當하거니와 林野處分當時에는 實로 重大한것이엇섯다. 祖先傳來로 가저온 私有林과 無主公山이라하야 自由로 伐採하든 林野가 一旦에 國有로 編入되어 一草一木을 대지못하게되니 어찌 觀念上 所有의 喪失뿐이리오, 日常生活의 大基礎가되는 燃料, 木材, 土地에 重大한 損失이엇섯다. 그리하야 當局은 大正十五年度부터 國有林野라도 民間에 緣故가 잇는 三百五十萬町步는 緣故林이라하야 同年四月 制令第七號로서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을 制定하고, 連하야 同年十二月 府令第八十號로서 同令施行規則을 發布하고 翌昭和二年 一月一日부터 右緣故林野는 모다 當該緣故者에게 無償讓與하기로 하얏는데 昭和八年度까지 處分한 國有緣故林은 百十萬八千餘件, 百十三萬四千餘筆, 三百十九萬二千餘町步에 達하얏다.

四

그러나 이 緣故林의 讓與는 林野所有者에 對한 讓與요 無主公山에 매달려 살든 累萬의 細民에게는 何等 恩惠를 주지 못하얏다. 勿論 土地를 못가진 貧農이 國有地를 借下바든 地主로부터 土地를 借耕하는것과 가티 林野의 與賃를 잘라주어 그一部分을 어더쓰는 때도 잇엇슬지 모르나 作而과가티 柴草를 自由히 伐採할수는업다.

그리하야 그들은 森林令의 處罰이 잇는줄도 알면서 冬節의 燃料를 求코저 保安林 區內에 侵入하야 柴草를 盜伐한다. 이 年年 數萬의 件數를 내는 森林令 違反이라것이다. 어찌 一、二個人의 生活問題리요.

五

當局에서는 이에 鑑하야 明年度부터는 林野의 保存第一主義를 緩和하야 林野를 開放하야 農耕地 或은 牧場地로 한다 한다. 그러나 農耕地나 牧場地를 開放한다 할지라도 一部資產階級에 開放하고 細民에게 開放치 안는다면 何等 效果가 업슬것이다. 何故오하면 그들은 新地를 가진 때문이다. 그러므로 公開林을 만들어 貸對를 提供케하며, 村落共同耕作地를 만들어 細民들에게 耕作할 땅을 가지도록 해야 비로소 山林開放의 意義가 잇슬것이다.

이리하라면 管理費 가튼것이 必要하겟지만 事實이나 林野를 開放한다고 細民에게 利益이 均霑되지안는다면 從來의 林野行政이 結局 一部 資產家의 利益을 擁護햇다는것과가튼 批難을 免치 못할것이다.

聯盟決議案成立
伊에代表妥協案受諾
實際交涉은三國會議에
理事會는爲先閉幕

【電通주네브三日發】伊, 에紛爭特別理事會는 英佛伊妥協案에 對한 에디오피아政府의 同意回答이 三日午後六時에 到着되엿슴으로 午後七時十分 非公開로서開會하고 同二十分公開會議로 옴마리트비노프議長은 右妥協案에 基하야 起草된 決議案을 朗讀하엿다 에디오피아代表 레이제氏는 平和維持를爲하야 困難한것을 참고 特히理事會의 決定에 無條件承服한다는 旨를言明한다음 伊太利代表아로이지氏는 再開期日을 確定하는데는 同意할수업스나 理事會는 伊太利의 眞意를諒解치 못하는바가 아니라는것을 確信하고 決議案의 成立을妨害치안켓다는旨를言明하엿다 玆에라발 佛外相은 斡旋者로서 本決議案이 和爲에 有效하기를 希望하고 또 佛國의 斡旋任務가 아직完了치 못하엿슴으로 今後에도 努力을 繼續하겟다고 言明한 다음 英代表이든氏는 關係諸條約의 活用에 依하야 紛爭解決을 貫하려하는 同時에 더욱그 成否에不拘하고 國際聯盟은自己의 責務上 來九月四日全局的으로 再檢討를 行하기를미리 確定할것이다 라고 聯盟擁護의 方針을 거듭 强調하엿다 이外에 丁抹代表로부터 和協事業의 眞實한 進行과 理事會의 誠意잇는 干與와를 希望하엿슴뿐으로 다시發言하는 代表가업슴으로 리트비노프議長은 前記妥協決議案을 에 諮하매 異議업시 이를可決하엿다 그리고 第一의 決議案은 和協委員會가 왈왈地方의 主權等의 問題에 抵觸하지안코 和協事業을 再開하야 第五의 委員을 參加식혀 一九二八年 條約을 基礎로 可及的 九月一日까지에 解決方策을 作成하야 九月四日 以前 日附로 이를 兩國政府에 通報할것을 規定한것으로 이에는 伊太利代表도 公式으로 贊意를 表明하야 全員贊成으로 採決되엿다

第二의 決議案은 理事會가 九月四日에 開會하야 紛爭諸點에 對하야 全體的 審議를 行할 豫定을 明瞭히한것으로 此에는 伊太利代表는 棄權하엿스나 리트비노프議長은 『棄權하드라도 決議文의 成立은 妨害치 안는다』고 全會一致로決議案이 採決되엇다는 旨를 宣明하엿다

그리고 會議는 午後八時에 이르러 散會하엿는데 英, 佛, 伊三國代表는 散會하기前에 共同宣言을 發表하야 三國이 一九〇六年條約에 基하야 에디오피아問題의 全面的解決을 圖하기爲하야 可及的 急速히 三國會議를 開始할것이다 라고 聲明하엿는데 右三國會談은 和協委員會의 權限이 制限된 今日 事實上 伊, 에紛爭의 調停機關이 될것으로 英, 佛兩代表는 巴里會合을 希望하엿스나 伊太利의 反對로 南佛니스에서 開催키로 變更된形勢이다

그리하야 前後二回의 公式會合과 따라 英佛伊列强의 會談結果로 實質的交涉은 三國會議로 미루고 署中一個月間의 期限延期를 決定하고 一旦閉會를 告하게된것이다

舞臺는巴里로!
理事會와는獨立的性質띄고
六日、巴里서三國會議

【電通주네브三日發】一九〇六年條約에依한 三國會議는 關係國인 에디오피아代表를加하야 來週初(아마六日)巴里에서 開催키로되엿다 最初英佛和協案中에는 右會議는 九月四日까지에 그結果를 聯盟理事會에 報告할것이라는 小條項이 包含되고잇섯다 뭇솔리니伊首相의 强硬한 反對로 此를削除하고 單히理事會席上 英佛代表가 巴里會議의 經過를 來九月理事會에서 報告할 旨를 口頭로써 豫約하는 程度에 끄치기로되는바 따라서 巴里會議는 理事會에 對하야 正確한 獨立的性質을 가진點이 承認되엿다 이外에 和協委員會가 그事業을 再開하기로 되엿는데 二日 成立한 英佛妥協案은 和協委員會가 왈왈地方의主權이 國境線問題에 觸하는것을 禁하여버렷슴으로 結局理事會와 和協委員會는 形式的存在임에 끄치고 實際問題는 다英佛伊三國의 巴里에서의 直接交涉에 옴기는터로 舞臺는 一轉하야 今後의 에디오피아問題는 오로지 右三國會議에 左右되게되엿다

和協進行不拘
伊第九次動員令

【羅馬三日發聯合】國際聯盟에在한和協手續審議에不拘하고伊太利는 다시東阿遠征軍强化를 決定하고 數日中에 第九次動員에關한 重要命令을 發할것으로 期待되다 新規動員部隊의 主力은 二個師團及 파시스트民團으로써 組織될터이다

世界逸史

國體明徵聲明

國體明徵에關한 政府의 聲明은 白根書記官長이 그案文을起草하야 二日 陸海軍 兩當局과 最後的協議를 發하고 다시 重要閣僚의 諒解를 어더 最後的으로 案文을 調整하야 三日 政府聲明의 形式으로 發表되엿다 그內容은 國體의 尊嚴無比하다는 것을 强調하고 憲法學說中의 機關說을 排擊한다음 今後의 一層 國體明徵을 期하겟다는 政府의 決意를 披瀝한것이다.

聯盟理事會開會
決議案의要旨

伊、에紛爭問題를 審議할 國際聯盟理事會는 지난 三十一日 주네브軍縮會館에서 리트비노프 議長司會下에 開催되엿다 開會劈頭부터 伊代表 아로이지男의 聲明과 英兩國代表의 制限保留言明과 에、英兩國代表의 制限反對言明을 中心으로 俄然 論爭이 展開되드니 라발佛首相의 斡旋으로 兩當事國은 和協委員會의 議事繼續에는 反對안케되여 英、佛兩國代表가 作成하야 伊代表에게 提示하엿든바 伊太利側의 反對를맛나 再三修正을 加하는 一方 英佛兩國代表의 折衝으로 마츰내 三日에 이르러 英佛、伊三國代表間에 妥協이 成立되여 三日公開會議에 決議案을上程케 되엿는데 에디오피아代表도 이에同意를表明하엿다

三日公開會議에 上程될 決議案要旨는 다음과갓다

一、和協委員會는 兩國紛爭의 客觀的事實과 責任所在를 檢討하되 國境線을 確立케할 權限은無함

一、和協委員會는 仲裁委員會를 任命하야 伊、에兩國間의 條約에依하야 國境紛爭의 具體的 處理를圖함

一、理事會는 九月四日 會議를 開하고 和協委員會의 報告에 基하야 伊、에兩國間의 紛爭全般을 討議키로함

에國에戰熱高潮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盟理事會가 開會된 三十一日 에디오피아皇帝는 國都 아디스아베바에 全國 酋長會議를 開하고 戰時對策을 協議하는 一方 一日에는 陸軍省廣場에서 大觀兵式을 擧行하고 激勵하야 大規模의 新兵募集에 着手하엿는데 市民幾數千은 即時出征을 志願하고 婦女까지도 出征을自願하는 狀態로 에디오피아 全國은 바야흐로 戰爭氣分에 몰…

米防備强化言明

華府海軍條約의 失效와함께 各國의 海軍競爭이 必然之勢로되여잇는 此際 米海軍長官스완슨氏는 三十一日午後 新聞記者團에게大略如左한 海軍方針을 言明하엿다

米海軍省에서는 各國의 海軍擴張에 對抗키爲하야 太平洋上에잇는 屬領島嶼의 防備施設을强化하고 旣定計畫에 基한 海軍建造를 促進할 豫定이다 그리고 比律賓을 喪失하게되면 어데가서든가 그代償을 求하여야할것이다

空軍根據案通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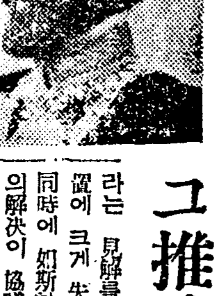
米國本土와 알라스카의 防備强化를 目的으로한 陸軍航空六根據地設立에 關한 윌켁스航空根據地案創設法案은 二十九日 上院을 通過하야 大統領에게 遞附되엿는데 그費用은 法案에規定되지안핫스나 一億萬弗以上을 要할것이며 그豫定地는 一、알라스카 二、太平洋岸西北部 三、라키山 四、大西洋岸西北部 五、칼립海沿岸 六、米本土東南部 等地이다

大水害의疊出

三十日부터 鴨綠江의大增水로 因하야 그沿岸一帶는 六十年來에 처음보는 大水害를 蒙하게되여 罹災民 二萬五千 流失及倒壞家屋四千 浸水田畓 五萬餘町步 流失木材 一千萬圓에 達하는 大慘禍를 내엿다

中部中國에도 今年에 大洪水가 襲來하게되여 國民政府의 報告에依하면 湖北、安徽、湖南、廣西四省의 水害는 特히 甚大하야 罹災民 一千萬 水沒田畓十平方키로에 達하는바 被害額을 合하면 約五億元에 達한다고한다

三國新妥協案에
『에』國官憲失望
列國에分割管理될가를念慮
그推移에警戒的態度



【電通아디스아베바三日發】주네브에서 二日夜 英佛伊三國代表間에 成立한 新妥協案의 內容은 벌서 當地에도 速報가 드러왓는데 에國官邊에서는

一、新妥協案은 一九〇六年條約을 援用하야 問題의 解決을 關係四個國會議에 移할것을 決定하고잇는데에 디오피아의 提訴에 對하야 如斯한 回答을 與한것은 甚히 意外이다

一、和協委員會가 第五仲裁委員을 任命하고 그 討議範圍를 限定하고 왈왈事件을 中心으로 한 若干事項만을 討議하려는것은 不可解한일이다

라는 見解를 抱하고 聯盟의 態度에 크게 失望의 氣色을 示하는 同時에 如斯한 處置에 依하야 紛爭의 解決이 協議되는時는 結局 에디오피아는 列國의 分割管理가 될 念慮가잇다고하야 新妥協案에 對하야 極히 警戒的 態度를 가지고잇다 (寫眞은에國皇帝)

伊首相과會見코
直接紛爭解決
에皇帝自身出馬言明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에디오피아外務當局은 하일·셀라시에 一世가 뭇솔리니首相과 直接會見하야 紛爭解決에當할 用意가 잇다고 三日左와如히 言明하얏다

皇帝하일·셀라시에 一世는 萬若 뭇솔리니首相의 提議가 잇는 時에는 스스로어던한 中立國에 出馬하야 뭇소리니首相과 會見하고 直接紛爭解決에 當할意向을 가지고잇다

理事會成果疑問

【電通주네브三日發】聯盟特別理事會에잇서서 戰爭의 危機는겨우 一個月 解消되엿는데 右期間中에는 伊에兩當事國은 絶對로戰爭에 訴치안켓다는 條項은못솔리니 伊首相이 伊太利國民의意見이 안이라고 强硬히 反對하야 決議案으로부터 削除되엿슴으로 實際에잇서서는 다만 審議가 一個月延期된데 긋친다는 批評이 이러나고잇다 結局特別理事會의 成果로 擧할수잇는 것은 英、佛、伊會議의 開催를 促進한것뿐일것이다 會議가 九月四日에 成功치못할 境遇에는 그때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雨季가끗나 伊太利軍事行動의 最適期가되는바 事件은 今日보담도 一層 重大하게될수 잇다 勿論라발佛首相을 中心으로 三國會議는 何等의 實際的 解決策을 捻出하리라고, 期待되는데 今後 理事會에서 聯盟權威의 傳統的方針을 豫想以上으로 明確히 保持할 英國은 九月까지에 處理되지못하면 伊太利의 聯盟脫退를 賭하여서라도 平和解決方式에關한 理事會의 勸告를 伊太利에 强要하리라는 자못强硬한 決意를 갓고잇슴으로 今後 英佛關係는 一層 注目되리라한다

米國文化雜誌에
重大不敬記事
直時嚴重抗議토록通牒

【東京電話聯合】三日午後內務省에서는 文化雜誌로 社會的으로 有名한 紐育發行의 배니틔, 페아의 一九三五年七月號第六十頁(日本大宮殿)에對한 記事는 安寧을 害하는것이라고 削除되엿고 同八月號第三十九頁의 寫眞及 記事中 日本皇室에關하야 甚히 不敬한 記事가 揭載되여잇슴을 發見하야 直時全國各警察部長宛新聞紙法 第二十三條로 右雜誌의 差押을 發令하얏는데 同問題의 八月號所載記事는 未曾有의 大不敬事件으로 關係當局은 狼狽그極에 達하고 直時駐米日本大使에게 嚴重抗議할것을 通牒하기로되엿다 元來外國에서 發行되는 雜誌에 關하야는 在外公館에서 한번더 보도록 되여잇는것으로 이것이在外公館의責한 使命의半分임에도不拘하고 今回事件을 惹起하얏슴으로 駐米大使館及 各總領事館의怠慢으로보인다

樞相擁護聲明은
反對派를益刺戟
今後一層複雜化未免

【東京電話聯合】政府는 機關說排擊에 關한 聲明發表와 同時에 岡田首相談의 形式으로 機關說論者와 如한 風說이 잇는 一木樞相에 關하야는 聲明을하고 一木樞相의 進退까지에 波及하려는 形勢에잇슴을 察知하고 그 波及을 念慮하야 事前에 岡田首相은 一木樞相이 帝國大學時代의 講義資料及 憲法에 關한 著書에 對하야도 白根書記官長을 爲始하야 金森法制局長官 橫溝內閣書記官으로하여금 過般부터 內容을檢討하고 審議를 거듭한結果 機關說이라고 誤解될것과가튼 事實은 全然發見되지안헛슴으로 今後 一木樞相에 對한 이風說除去에 一層努力코저 積極的으로 記者團과의 會見에서 政府의 所信을 明白히한것인데 一木樞相에 關한 政府의 聲明은 그解消보다도 도리혀排擊論者의 感情을 全然히 刺戟하고 問題를 複雜化식히지 안흘가고 그推移는 注目되여잇다 (寫眞은 一木樞相)

『一木樞相은 機關說元祖』
政友山本氏反駁

【東京電話聯合】政友會에서는 三日政府의 國體明徵의 聲明이 發表되자 本部에 山本實行委員長 以下各委員이 參集協議한結果 山本委員長의 名義로서 『政府의聲明에 對하야 同感에 不堪하는바이나 今後聲明의 實行에 對하야 嚴重監視키로되엿는데 特히 一木樞相問題에 關한 岡田首相의 聲明에 對하야 一木氏가 天皇機關說을 輸入한 張本人이라는것은 公知의 事實로서 公開論文에依하야 大學教授를 辭退한것으로써 알니워저 잇스며 機關說을 擁護하얏다는 美濃部博士로하야금 憲法御進講을식힌것도 同氏인바 그後 宮中生活多年에 此를解消하얏다는 聲明을하기로되여 政府今後의 處置를 監視하는一方 國體明徵監視委員會는 此를存續키로되엿다

各省新規要求
十億圓突破
그査定에大藏當局苦心

【電通東京電話】明年度 各省新規要求額은 今日 傳하는바에依하면 (單位百萬圓)

海軍省	三〇三
陸軍省	四〇四
內務省	一〇五
農林省	六六
文部省	一二
大藏省	一〇〇
(國債利拂 爲替交換差損金을 含함)	
外務省	三〇
司法省	四
拓務省	一二
遞信省	三〇
商工省	一三

으로 總額十億八千萬圓程度인대 明年度에 잇서서도 陸海軍의 國防豫算이 太半을 占하여잇는바 豫算編成의 難關은오직陸海軍豫算에잇다 이를 如何한 程度로 査定할는지 이點에 高橋藏相과 大藏當局의 苦心이잇는데 藏相은 專히 公債消化力과 國防의 必要限度를 考慮하야 豫算成에 當하게될것이다 그러나 各省의 要求額은 今後에서도 追加될모양인데 果然 十億圓程度의 要求에 끈치게 될는지 疑問이다 今後豫算編成이 進捗됨에 伴하야 各省의 豫算爭奪主義가 擡頭될는지 알수업고 國防費外에도 各省豫算에 對하야 相當히 編成難은 加重되리라고 觀測되는바 벌서부터 豫算編成前途에 對한 危惧의 念이잇다

今日本紙四面

人事·集會

▲白南薰氏(晋州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長) 上京中本社新築落成祝賀次來社

八面鋒

特別理事會에 上程할 和協委員會 決議案이 英佛伊三國間에 協定되고 伊、에兩國元首의 同意까지 어덧다고。

◇

無能의 別名이든 國際聯盟에 새로운 營養이 注射되엇군。

◇

그러나 和協案 內容에 日、『紛爭의 客觀的 事實과 責任의所在를 檢討國、할지언정 境線確立의 權限은 업다』고

◇

상을 누가 먼저 걷은것을말할수잇스나 글코 울흔것은모르겟다는 酬酌?

◇

게는 게편이다。 에國官民이 聯盟의 實體를 바른가 憂慮할도 杞憂가 아닐일。

◇

新義州水災에 義捐金 還至。同胞愛의 發露。

日曜氣配

▲株式=實結過決果로 目先引締가豫想되나 依然難斷할수업고 氣迷繼行되리라고 觀測된다 氣配不變

大新 一六三、四〇 鐘新 二一〇、〇〇 東新 一三六、三〇 日產 九六、二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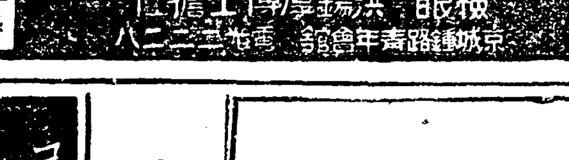
▲期米=正米手堅으로 期近은 引締되나 先限은 順氣良好에 畏待으로 實行되여 中先의 輸는 더욱 擴大되리라고 觀測된다 氣配不變

▲綿絲=不變

(大阪地方天候晴天)

肺專門療養院
住所 黃海道海州邑外
十
院長 醫學博士 吉…
副院長 金秉瑞
電話一七五番 振替京城一〇六九番
一、入院療養通信 一冊
一、療養指針 八十四錢 一冊
一、入院案內書 …

洪錫厚診察所眼鏡部
主任 書·泉·學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壽年會館 電話光化門二八二二



自轉車材料原價奉仕
製造元より直接皆様へ
特典 (付商服 原價) 信用問屋
最高級新車 日英保險付 …
東京市日本橋區 …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〇四一七番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電話本 八六〇一·九〇四 八四〇三·四〇九
振替京城一六一番
營業案內申越進呈

말더듬이
訥言門矯正院
京城府…

압후痔에는
오세로
치센
疾藥
全國各藥店에잇소
¥0.30 ¥0.50

民謠界의女王
新專屬 李銀波孃
入社第一回作品
新民謠 關西千里 (日本) 지는夕陽
OKEH
오-게-코-리-도

官認 大田寫眞學院 第三回 生徒募集
出願締切期日 九月十九日 開學期日 九月二十五日
三個月卒業 學則要二錢切手
大田邑大興町

金 銀 福 白 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38)
振替東京六八八番
略號受信 (クフシイウケト)
出張所 平壤府旭町

八月一日부터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映畫鑑賞은 團成社에서
언제든지 第一級名作封切
▲파라마운트 超特作日本版
로마노프朝의 나즈는때카사린女王
마르레느·띄트릿히主演
▲파라마운트 特作 日本版
사랑의 耳、퐁、三
▲大學의 리듬
…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 九六五
團成社

資生堂洗濯石鹸
자생당 빨래 비누
本品의 特徵!
一、最高의 品質、最低의 價格
一、芳香、거품이 極히 佳良
一、손을 안거칠게、살결은 안傷하게
一、洗濯後에 不快한 내음이 안나고 쓰기조타
東京·銀座 資生堂

繁茂期로 士兵熾盛 對岸同胞迫害莫甚

咸南對岸에 四百餘名出沒

移住民大槪가 避難

【咸興】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정보에의하면 함남도대안 십삼도구서강성(十三道溝西崗城)에 웅거와서 동구시가지습격을 회책하고잇는 토병마려만수(馬旅萬首)등이 합체한 이백여명토병단은 의연히 동지에 잠거하면서 시가지에 무시로 습격하여 강탈을 감행한다는바 다시 일일 오전열한시경 팔도구부운수리(八道溝富雲水里) 방면으로부터 계[illegible]명의 토병단사백여명이 웅거와서 전긔한처 토병단과 합류하여가지고 목하십이도구동강성(十二道溝東崗城)일대로 부터십삼도구서강성(十三道溝西崗城)일대에 걸처서일량일중에 구시가지습격은어김업시 결행할것을 결의하고잇다는데 이토병단은 전부만주국군복을 착용하고 상당한총긔탄약등을 가지고잇다하며 외국식경긔관총 두자루까지도 소유하고잇는 극히정예한 토병단이라는데 목하구시가지 인심은 극도의 공포에 싸혀 모다 폐문를 출하는형편이며 미증유의 동요를일으키고 잇다는데 신갈파(新乫坡)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을파견하여불면불휴로 엄중한경계를하고잇스며 장백현경무당국에서도 전서원을 동원하여 경계에 당하고잇다

反戰檄文關係 檢擧事件은 擴大

十數名青年을引致取調中

興南警察더욱緊張

【興南】질소비료회사에 로동자가 여시수만명이잇서 적화사건이 련발하야 흥남경찰서에서는 평시라도 각방면에 경계를엄중히하엿스나 지난 이십사일부터는 반전데이를압두고 전서원을 총출동하야 흥은정복 흥은사복으로 시내외요소마다 물샐틈업시 경계하던바 삼십일밤미명에 조질회사외구의 수처에 붉은한 격문다수가 산포된것을 발견하자 도경찰부와 합동서의응원으로 구룡리(九龍里)와 운중리(雲中里)방면을 비롯하야 청년십여명을 검거하여 엄중취조중이다 그내용은 절대비밀에부처알수업스나 모중대결사가 발로된듯하며 취조의결과로 사건이확대되리라고 추측된다고한다

朝鮮語標準語

査定委員二讀會

五日부터牛耳洞에서

조선어 표준어 사정 위원회 이독회(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二讀會)는 오는오일 오전팔시부터 닷새동안 경성동소문외 우이동 봉황각(牛耳洞 鳳凰閣)에서 열리게 되엿다 한다。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주최로 지난 일월에 충남 온양온천에서 열린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 일독회가 지난뒤에 그동안 수정과 보충을 마치고 이번에 이독회를 여는것이다。최후로 심의하는것인만큼 신중히하는 뜻에서 먼저번 사십명 위원외에 삼십명의 위원을 증선하야 모다 칠십명으로 하엿다는데 그씨명은 다음과 갓다。이번 회의의 비용은 한상억(韓相億)박사 김도연(金度演)박사 두분이 자담하엿다 한다。

◇委員氏名(가나다順)

孔 濯 具滋玉 權悳奎 金克培 金東煥 金斗憲 金炳濟 金良洙 金允經 金昶濟 金泰源 金炯基 金活蘭 金熙祥 文世榮 朴允進 朴顯植 方信榮 方鍾鉉 白樂濬 白象圭 申明均 申允局 申仁植 徐恒錫 安碩柱 安在鴻 梁柱東 廉尙燮 玉璿珍 兪鎭午 尹 澄 尹福榮 尹日善 李 鉀 李康來 李寬求 李克魯 李基潤 李萬珪 李命七 李秉岐 李世楨 李淑鍾 李浩鎔 李源喆 李裕應 李允宰 李鍾麟 李 鐸 李泰俊 李浩益 李軒求 李熙昇 張志暎 張鉉植 全弼淳 鄭烈模 鄭寅燮 趙基栞 趙容萬 趙鏞熏 趙憲泳 車相瓚 崔斗善 崔鉉培 韓 澄 咸大勳 洪愛施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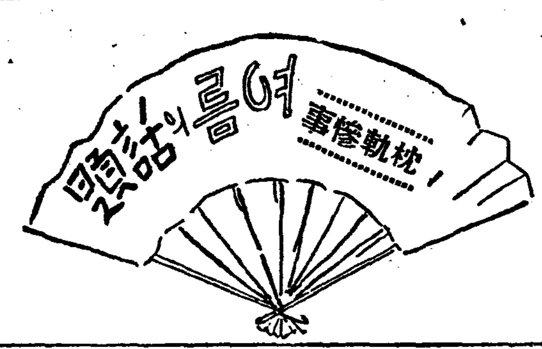
天道教地日記念

시내경운동에잇는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오는십사일 이동교제이세 교조 최해월선생(同教第二世教祖崔海月先生)의 득도하신 제칠십이회기렴일이오 겸하야 동교청년동맹주최 긔렴강좌가잇슴으로 동교간부들은 준비에 분망중이며 벌서부터 지방교인이 속속상경한다고한다

粘蟬碑模型을 平壤博物館에

비치도록준비

【平壤】평양 박물관에서는 조선과 일본내지를통하여 최고의비(碑)로유명할뿐더러 락랑시대(樂浪時代)로서 연구상 중요재료인 룡강군해운면갈성리(龍岡郡海雲面葛城里)부락동측 용동고성(龍洞古城)부근에잇는 점선비(粘蟬碑)의척본(拓本)을뜨러둔 관에 보관하고 따라크기가갓흔 모형을 제작하기로 되여사일소천(小泉)평양박물관장이 현장에 출장케되엿다는바 동비는작년에 임이 조선고적국보천연긔념물보존령에 지정되엿슴으로 비문에 의하여 현재의 대동강이 락랑시대에 렬수(列水)로 불럿든것과 우동고성이 점선현치지(粘蟬縣治址)엿다는것이 확증되고잇다고한다



괴로운더위에 시달린몸을 잠시 납량(納涼)으로 회복식히려다가 서늘한 건들바람에 노곤한몸이 어느사이 잠드는줄 모르게 잠이들어서 질거운 꿈나라로 녀을 몰리다가 무정한긔차에 치여 영원한잠이드는 가여운 사람이 해마다 여름이면만타 『모단』숙녀에『파라솔』(?)[illegible]

枕軌는冥府特急

鐵路納凉의悲劇

아모리困하고더웁드래도 軌道베고자지말자 【三】

이란 말은잇거니와『강철로친』에『저승특급』이 련결되얏다는 말은업다 그리고 이런일은 다만 조선안에서 만어더볼수잇는 진긔한 사고이오 또현상이다 철도『레일』을 베고 백장편하게 누어자다가 가엽시도철로의이슬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는가를 철도국 운전과사고계(運轉課事故係)에 물어보면매일평균다섯명은되어서금년에도지난년도초인사월일일부터 지금까지 이십칠명이나된다고한다 인류의문화를 향상식히고 민중의복리를 증진식히는것이 문명리긔의 존재본의인만큼 이런 귀중한것으로 인간의 목숨(生命)을빼앗는다는것은 실로 미안한일이라하야 철도당국에서는 엇더케든지하야 이것을 근절식히고자 백방으로 노력중이나 암만하야도 그실적이나타나지아니하야 비상한 고심을하는중이다 누구나 칼을물고뛰어들면 위태한것임을 아는것임으로 칼을물고 뛰어든다는것은 함용답에 지나지안코 실제의 하는 사람은업스나 칼을물고뛰어드는이보다 오히려 더위험한『레일』퇴침의 잠을잠이 더위험한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위험한줄 알면서 엇지하야 그가튼위험을 감행하는냐할이 한 알수업는 수수꺼기와가티도 생각든다 그러나 위험한레일을 그들이베이는리면에는 인생활의 비참한 일면이 드러다보인다 대개이들은 구십구파ㅣ센트가 시골농부들이다 지주를위하야 그리고 다음에 처자와 자신을 위하야 소가리입하고 말가리나 뎀비는 농부들이다 돈잇든 서방님들은 피서를간다고 고흔새시를 동모하야 바다로간다 산으로간다 서늘한곳에가서 행락을하는 뜨거운 여름에 불볕이 쪼이는 들을차저가서 김(蔡)을매는 떡시루(甑)속가티 밋헤서는 무더운 김이치닷고 위에서는 불뎡이를 담아붓는듯한 그속에서 종일 논매고 밧매고 물대여서 몸은 구리빗이되고 살은 허물이벗겨진다 거긔다가 먹는것이라고랑 편봉을 짝짝찌르는 보리밥에중분히 절어지지도안흔 열무김치 부스러기의 영양(營養)이라고는 울어날려야 업는것만을 먹으니 몸을 극도로피로한테 그것을회복식힐 영양적원천은 업다시히 된다

▽—△

그리고 보면 몸을더욱 곤하게 된다 그나 그뿐인가 밤에 잠으로써 피로를 조금 회복하고 거긔딸아 조름이 마치 오라니 게따지 가른 오막사리에 바람의 소통이 적으니 더욱더 울고 모긔는 빽빽한 입초리를 일제사격하며 빈대는 암습(暗襲)을 거듭하야 실로 집에서는 그가티 휘진몸이지만 잠이들수가업게된다 자연히 서늘한곳을 찾게되니 여름농촌에는 밤에장一뚝에가야 볼수잇게되고 집마다 정을어더보라면 정자나무밋헤나 시원한 사랑간이나 아니그러면

는 집직히는 주부(主婦)가 어린아이를데리고 괴로운 모긔를가에서 분주한밤을 보내는것이다

뜰과 물을 차자 이동하는 유목민(遊牧民) 모양으로 서늘한 바람을 따라 처소를 밧구는 그들에게 철로뚝은 유일한 납량대(納凉臺)가 되는것이다。물론그들도 위험한것을 모르는것이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간 바람이나 쏘이려는 것이나 일분이분지나가서 사오분만지나면 자긔도모르는사이 모진잠이 들어버리게되다

저승이나 잠이야송은것가튼면 긔차오는소리에 울려서라도 깨일것이나 원체피로한끼테 철벽가치 구든잠이든 그들에게는 긔차바퀴의 울림소리가 마치 엇던음악적 음향과가치 유쾌히들리고 자미잇게 늣겨지는모양이다

이튼날 아츰이되면 한밤의 [illegible] 단투자취는 꿈업는이생의 후잔재(殘滓)를 남겨노흘뿐이다

炎熱에 脫線인가 自殺者連日發生

이세상을하직한다고집을나간

疑問의自殺遺書二通

날마다 구십이삼도를 오르고 내리는 무더운더위는 이세상을 비관하는 청춘남녀의 신경을 자극하야 자살구렁이로 몰어넛는지 수일래에 자살극이만흔중 삼일 경성시내에는 유서를두고 자살하겟다고 집을나간사건이 둘이나잇다

其一…삼일오후 한시경 부내송월동(松月洞) 일백팔번지황인봉(黃仁鳳)의처 박경희(朴敬熙)(二六)는 가족여러사람을 위하야 자기는 갈곳으로간다 죽거든 화장은 하지말고 죽으아들 재하(在河)엽헤 매장하여달라 그리고 녀자의 마음에죽을각오를 하엿지마는 다른사람에게 갑흘돈을 못갑고 죽는것이 불안하든지 두부갑 물갑등을 계산해 주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데로 나간후 돌아오지 안는다하야 그의남편 전긔황인봉은 소관서대문 경찰서에 수색을 제출하여왓슴으로 이서에서는즉시 관내각서에 수배하야 그의행방을 엄탐중이라한다

其二 부내 필운동(弼雲洞) 일백륙십구번지 김용태(金容泰)(三〇)는 삼일오전열시경 그의아우 용화(容華)와함께 사직공원에놀러갓다가 그의아우에게 편지한장을 주어돌려 보낸후 밤이되여도 돌아오지안함으로 편지를 뜨더본즉 세상이 귀치안하야 죽어버리겟다는 내용이서잇슴으로 그의가족들은 깜작놀래여 팔방으로 그를 수색하는 동시에 소관종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한다

男便차저千里길을 流離彷徨中에昏倒

세어린것을데리고다니다가

咸興까지와서氣盡한婦人哀話

【咸興】남편이 북쪽에잇다는소문만듯고 그를차저서 어린세자식을 등에업고 손에이끌고서 강원도로부터 함흥까지 걸어왓스나 구십도를넘는 살인적혹서와 수일간주린 피로로 드듸여 땅에쓰러저 혼수상태에 빠저버린 비절참절한 인생비극 일막이잇다—지난이일 오후일곱시경 함흥부청전광장에 나이사십세가량 되부인한명이 길바닥에 쓰러저 정신을 일코잇고 그겻테서 어린아이 세명이울면서 어머님을 찾고잇는 비극이잇서 보는사람으로하여곰 눈물을 금치못하게 하엿다 그내용을 탐문컨대 그부인은 강원도 양구(楊口)에사는 리씨(李氏)(四〇)라는 녀자로 남편이 수년전공음을 횡령하고 어듸로인지 도주한채로 이래아무소식을 듯지못하고 열두살먹은것을 필두로 일곱살 세살먹은 세아들과가티 상부구식으로 겨우 연명하여오다가 금번녀름에 이르러서 남편이 북방면에 살고잇다는 소문을듯고 그를차즈려고 결심하고 칠월초순 드듸여 어린세자식을 업고이끌고 하여 향리양구를 출발하여 이십일간 순전히 도보로 함흥까지와왓스나 련사、오일동안 먹지못한우에 더위로인하여 극도의 피로끼테 한거름도 옴겨노흘수업서 그와가티 쓰러진것이라는데 이소문을듯고 사위에서 동정의 밥과옷이 모히어 따뜻한 인정속에 부청소사실에서 피로를 회복하엿다 그러나 그의 찾는 남편은 아직 차즐길이업고 주림과 피로는 또한뒤를 이어 따르고잇다

平北의水害額 二百萬圓突破

三日夜까지判明된것

【新義州電話聯合】수십년래의큰홍수에만난 평안북도일대의 피해는 삼일밤까지에 판명된것만으로 이백만원을 돌파하야 얼마나 비참하엿는가를 상상케한다

行方不明三名、溺死八名、家屋倒壞及 流失四百廿七戶、道路浸水家屋四千四百九十戶、流失四萬三千百四十五메돌 橋梁流失七十九 筏木流失十二萬三千九百十五尺締 農作被害面積四千六百三十三町步

夏期寫眞講習

寫眞師會主催

경성사진사협회(寫眞師協會)에서는 오는 오일부터 십일까지 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내 긔청사진학원(基靑寫眞學院)에서 강습회를열고 사진학리(寫眞學理)와 채광(採光) 수경(修整) 인화(印畵) 현상(現象)등을 무료개강키로되엿는데 시간은 오전열시부터 열두시까지라하며 강사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甲榮均 朴晩達 金光培 李完根 李根雨 李賢洙 朴弼浩 玄聖麟 蔡熙元 朴在昇

소판돈百餘圓 路上에서强奪

륙십로인에게폭행하고

楊州渼金面大路에서

삼일오후 칠시반경 경긔도양주군미금면일패리(楊州郡渼金面一牌里) 로상에서 소파라가지고 도라가는사람의 돈일백삼십원을 강탈한 사건이잇다 양주군와부면율석리(瓦阜面栗石里) 칠백오십칠번지 한상우(韓尙遇)(六〇)는동일오후 다섯시경에 소를팔려고 동대문가축시장(東大門家畜市場)에와서 금일백삼십원에 팔고 도라가는도중전긔 장소에이르자년령삼십세전후의 장한이나타나돈과소지품을 내라고강요한끄테 응하지안흠으로 주먹으로 무수히 구타한다음에 돈을강탈한후 어데론지 종적을 감추어버렷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소관양주서에서는긴접각서에 수배하야 범인을엄탐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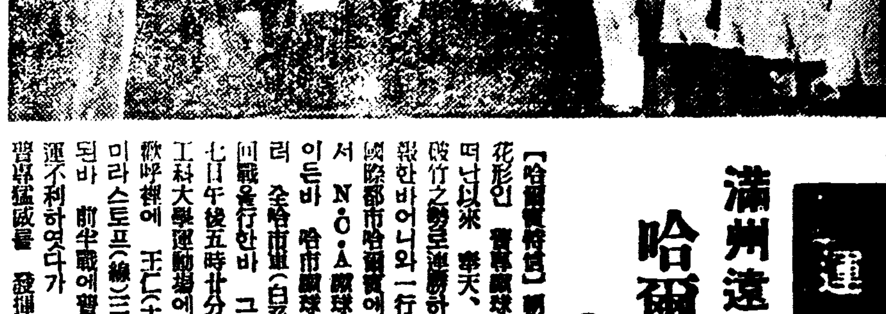
五錢짜리藥먹고 家族二名發狂

【谷山】지난 이십륙일 곡산군운중면 림계리천입동 연초소매인 박병식(谷山郡雲中面林溪里川入洞朴炳植)이가 자긔손자 류창두(柳昌斗)가 배가압허함으로 지나가는 엿장사에게 약갑오전을주고 풍파리한개를 사먹엿는바 곳발광하야 허든밥을함으로 이상하야 그의조모 박병식이가 다시 그약을 먹어보앗는데 그역시 발광케되여 완연히 그약의 잘못된일줄알고 응급치료하야 그이튼날에야 진정되엿다는데 그풍뿌리는 속명미치팔틀』이라는것이라한다

吉惠線最終工區 工事를着手

【咸興】함남 국경의 간선인길혜선(吉惠線)철도공사의 최종공사인 십오공구(十五工區)는 지난일일부터 대창(大倉)조의청부로 착수하엿다는데 공비는사십만칠천원에 달한다 이로인하야 함남에잇서서 가장중요한 이철도도 멀지안허 개통될것이다

運動競技欄



滿洲遠征普專蹴球

哈爾賓서도健鬪

全哈軍과一勝一敗無勝負

【哈爾賓特電】朝鮮學生蹴球界의花形인 普專蹴球團은滿洲遠征을 떠난以來 奉天、新京、等地에서 破竹之勢로連勝하고잇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一行은七月廿五日에 國際都市哈爾賓에到着하야當地에서 N·O·A蹴球聯盟과對戰할豫定이든바 哈市蹴球聯盟의希望을드러 全哈市軍(白系露人軍)과第二回戰을行한바 그第一回戰은 卄七日午後五時卅分부터 當地南江工科大學運動場에서 千餘觀衆의 歡呼聲에 王仁(主)、『카로소프』、미라스토프(線)三氏審判下에開始된바 前半戰에普專軍三對一로戰運不利하엿다가 後半戰에드러가 普專猛威를 發揮하야 結局五對三으로 普專軍第一戰에 快勝하엿스며 二十八日의 第二回戰은豪雨로因하야 豫定한時間보다 느저午後五時五十分에 開始되여 兩軍은文字그대로의 水泥戰을 演出하다가前半에一對一 後半에는普專軍連日의 戰鬪로疲勞하야 惡戰苦鬪[illegible]도 對하지못하니 兩軍一對一無勝負로 마치엇다 普專軍은 三十日午前九時二十分 發列車로 吉林으로 行하엿다 【寫眞은普專軍의陣容】

【全哈軍】 【普專軍】

[illegible]

올림픽氷上代表 出發期日決定

一月七日奉天發

明春二月 獨逸에서열리는 第四回冬季世界올림픽代表 金正淵 李聖德 張祐植君等의 出發期는 來十二月中旬 奉天에 集合하야 一月七日午後四時 三十分 奉天發(西伯利經由) 同十七日 伯林着 그後各部練習及 各地에轉戰 二月六日로 同十六日 올림픽大會參加 同十七日로 二十九日瑞西의 世界選手權大會에 出場及各地에轉戰 三月一日에 日本郵船會社白山丸으로 『나포리』出發 四月六日橫濱着 그리고 一月三、四、五의三日間에는 奉天國際運動場링에서 『올림픽』遠征選手送別會를 開催하기로 된바時日에 餘裕가잇슬때에는 新京에도 갈터이라한다。

都市對抗野球

奉天4A 仙鐵2

【滿通東京特電】都市對抗野球第二日 仙臺(鐵道局)對奉天(滿俱)戰은 四日午前 十時三十分부터 天知(球)伊丹、森田(壘)三氏審判下에 仙臺先攻으로開始、結局 4A對2로初陣의奉天勝

◇投捕 (仙臺)…富田、村田 (奉天)…小島、今市

(仙臺)000110000 2
(奉天)30000001A 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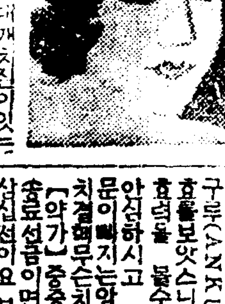
天氣豫報

曇一時晴

七四二미리의 颱風은 石垣島南海上에잇서서 北西으로 進行하야 寒氣을 擁護하려하고잇다 日本及 南朝鮮의 氣壓은 多少높호나 氣流는 不安定하고 西朝鮮에는 弱한 低氣壓이잇다 南滿洲及 新義州는 비가 오고 朝鮮은 흐리며 日本은 大槪 天氣가 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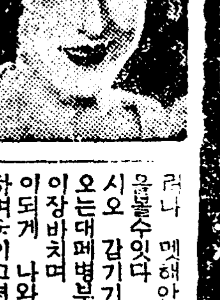
昨日最高 三三、五
最低 二三、一
今朝 二三、三
今日正午 二九、〇

치질엔 엉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 불치라하는 대개치질이잇는나하고 조시한의 상약법별치료를 대여러해된 치질로 수술을몇번이하여도 조시나지 안튼 치질이 엉구루(ANKUR)이주입분으로대효를보앗스니 일이년되는것이야 곳효력을 볼수잇다 다음가튼분은 안심하시고 꼭쓰시오 피나는대흉문이빠지는암치질 숫치질 치루치질해무스니치질입니다 【약가】중증에二원 경증엔一원 송료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이요 분문에 느키도하고바르기도하는약 (약은)경성신성당에로주문하시오

기침·담·천식엔 엣치삐ー가제일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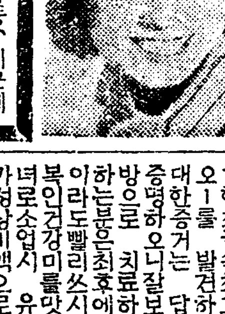


남녀노소업시 대개 기침을하는것인대 여러해되는천식 해소천속으로별별약을쓰고별별치료를하여도 안낫던해소가 신발명한엣치삐ー이주입분으로 대효를보앗다 그러나 멧해안되는기침이야 곳효력을볼수잇다 다음과가튼분은 곳쓰시오 감기기침은물론해소와담나오는대폐병부족증으로 기침과담이장바치며 졸졸록하는데기침이되게 나와서곤하며 젤젤하며숨이끄녀질것가튼대되게 안나와도조금식 바튼기침하는대기침은안해도장ー담이나오는대ー 【약가】완고용三원 중증용二원 경증에一원 지방송료는 대금인환이면삼십전약은환약이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요

부족증·폐병·륵막염엔 나오삐ー가제일이오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조래의치료가 불철저하엿다 일때까지는즉접화부의균을박멸하는 약이업스나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필요하고 원기를 도아주어야한다。그럼으로 몸을보하고 막는법이 새로발명되엇다 즉살균보혈강장운위제지(?)의 삼작용을 일시에 하여야되다。이작용을식히는데종래에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잇섯다。제일에 약먹어서 곳치는법 음식을 잘먹는법 일광욕법 산소법 가루숨어흡입료법에 여러가지가 잇는데 약한가지로 이여러가지 작용을 하는법을 다년고심 연구한결과발명하엿다。즉삼기의중병으로고통하는환자도 이를먹기시작하야 대효를본 참신기한 약이다。이러한 자신이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을 쓰고백방으로 치료를하여도 안나어서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 속히 나오삐를쓰시오。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하고 담뱃고 열이나고 몸이파리하여지고 혈담뱃고 피를토하고 숨이차고 원기가업고 가슴이아푸고 역구리가 절니고 갈비대도압프고 부족이찬분 부족증 폐병 륵막염 뇌점병 【약가】삼기용二十원 이기용十원 초기용五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선금이면 무료 (약은 가루약이오 열흘만 먹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요)

체증과속병엔 겡오ー가제일이오



효력최급상최근특효에 전세계에유명한후에 대서발명하야 도마니고세계적 신약으로 명도전보답 만하더니 엇던한제도 답니다

무병이 장지요 신외무물이라니 병이잇고는 전세계재산이다ー자기것이라하야도 소용이업고 산해팔진미가 눈압헤 싸혀잇서도 먹고십지안으니 무엇보다도 빨리 평생의욕망은 위장병자의일우장병이 나어서 구미잇서음식먹고 잘소화하야 건강한정신과건강한체로활발스럽게 남과가티활동을하고십흔것밧게는 더바라는것이업스리라 입때까지조흔듯한 일시적효력업는 좃타거나 뎡연히 안는듯거나그럿치안으면 인이백이는중독되는 약을먹어 백방으로별별치료를다하여도 특별한 효력을못보앗스리라 그런데 참신기한최고급 속최고권한 위장신약 겡오ー를 발견하엿다。그효력의위대한증거는 답지하는 감사장이 증명하오니잘보시고 안심하시고 백방으로 치료하여도 잘안되던 난치하는분은 꼭 겡오ー를 일생의최대행복인강건미를맛보시오 이액은 남녀로소업시 유아간기에신효하니 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것이 우리위생상 건강상제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의분은쓰시오◇

괴로、위괴양、구미업는대、신경쇠약、위확장、위산과다증、위하수증、구식조선말로 주체、담체、냉체、식체、화식등무슨 체증이든지 단시간에 듯습니다 액은가루약인대 하루에세번、식후반시간후 온수나 냉수에 먹습니다

◇약 갑

완고용(頑固用) 한갑 三원
중증용(重症用) 한갑 二원
경증용(輕症用) 한갑 一원

지방송료 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삼십전약가를꼭표삼십전짜리로보내도조흡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만일 무슨 약이던지 이상일스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 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업거든약을 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서양솔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자리)
電話光化門二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幸允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〇番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振興號稻扱機 全國을風靡하는名機 各地農村振興會의指定品 カワベ農具의特製品으로定

(一郡一店特約店募集)
元賣發總滿鮮 中川商店農具部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一七番地 電話本局二一一九番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平壤大和町

八月四日낮부터三日間 每日三回 正午 十二時 三時半 八時 料金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上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本版 松竹映畫會社特作全發聲日本版 喜劇 ◇靑春의 夢 人情活劇 戰時特派員 監督 五所平之助 マダムと女房 田中絹代 渡辺篤 小林十九二 朝鮮劇場

八月四日낮부터大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土曜·日曜·祭日 晝夜二回 一時 밤 七時 始映 파라마운트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大映畫 絢爛한殺人 監督 밋지엘라이센 共演 카리쿠퍼 빅타맥라크렌 現代劇 愛の審判 大都映畫社 超特作無聲映畫 米國도리아흠社映畫 喜劇 다구의幸運兒 全五卷 桃花劇場 電話光一三

八月二日より堂堂超特別大興行 待望二年號館の如き無闇を突破し遂に大封切!! 玆に見るは有ゆる女王映畫を清算し傲然君臨する往年の名監督『モロッコ』の世界的名コンビスタバーグデイトリッヒが染く永久不滅の燦たる映畫藝術の極致!!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 ノーマン・タウログ 主演 ジャック・オーキイ カレッヂリズム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監督 ジョセフ・フォン・スタンバーグ 主演 マレーネ・デイトリッヒ 總のページェント 巨匠スタンバーグと妖姬デイトリッヒの世界的名コンビの再現によるロマノフ王朝癈なりし頃の豪華壯麗カザリン女王の情熱を傳へる絢爛の大繪卷!! 浪花館

八月五日부터特別納凉週間! 晝夜三回 納涼料金 上三十錢 下二十錢 外國超特作全發聲活劇 海洋冒險 魔海 全十四卷 루시리안 랠리스 피터 라이프 大都映畫社超巨作時代劇 大阪 旗本御羽織衆 優美館

農作物被害만이 八千町步 二百萬圓

—五十年來初有의大洪水—

義州郡下各地水害

【義州】오십년래에 처음보는대수재에 가옥 교량의 류실파괴된것도 이루다말할수 업슬뿐더러 순전히 농작물의 피해만주내(州內)면외 어적도、검동도、다지도、구룡포(於赤島、黔同島、多獅島、九龍浦)일대며 고성(古城)면의 신도、마전、정주(新島、麻田、正州)동각동과 수진(水鎭)면의 다 서계 송천 수구 룡문 룡운(石溪、松川、水口、龍門、龍雲)동각동이며 송장(松長)면의 운천동(雲川洞) 과위화、광성(威化、光城)량면일대의 토지 약팔천정보에 농작물이 이십만석에 달하리라는바 매석에 십원식만 환산한다하더래도 이백만원에 달하리라한다

蒼天!是何忍斯! 九龍於赤 兩島慘景

本報支局員災地訪問

【義州】삼십일일부터 붓기시작한물은 지난일일에는 한길이상 줄엇다 본보의주에서는 우선재지동포의 안부가 궁금하야 오전열한시에 구룡포、어적도(九龍浦、於赤島)등 재지를 먼저 방문키로한바 인축의 피해는 업스나 농작물의 전멸、가옥의 류실、도괴등 물란리의 뒷자최의 그처참한 광경은 이루다 말할수업다 더구나 물이 한자만더 낫더면 어적도는 버리지하나남기지안코 전멸되엇스리라 한다 이제 가옥의 류실과 농작물의 피해를들면 다음과갓다

▲九龍浦=家屋流失三十戶 農作物約一千石

▲於赤島=家屋流失六十八戶半壞六十七戶浸水四戶農作物八千石

罹災民에 同情 義捐金品遝至

【義州】미증유의 대수재를 당하자 즉시 불교관음부인회장 량성연씨가 금삼십원을 의연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동회에서는 그밧게도 더모집하야본지국을거처 의주읍부재민에 전달하엿스며 그외여러사람의 의연품이 잇다는바 그방명은다음과갓다

金一圓五十錢 佛教布教師若體燮 金一圓五十錢 化主張普賢行 金二圓 觀音婦人會財務張聚基 金一圓 布教員朱惠敏 金一圓 布教員金龍正 金五十錢 伴侶金演守 金五十錢 同朴君賓 金二圓 蘇家李景九 (以上本支局經由分) 金五圓 淸衆醫院長朴承大 金五十圓 天主教會神父玉保乙 白米三斗 東一洋品店 尹尙煥 ……以上

災民患者續出로 市內醫師總動

【義州】지난삼일 미증유의홍수가 압록강에 범람될때에 본지국에서는 재민들의 환자가만흘것을 예측하고 시내에잇는 제중의원박(濟衆=朴承大)씨와 정산의원김지정(鼎山=金志禎)씨와 구세의원 장창식(救世=張昌植)씨등에게 특히재민을 위하야 무료진단할것을 간청하엿든바 실로 수용소의 환자가속출함으로 전긔세의사와 도립의원의 오상옥 오흥한 정리향등 삼의사까지 총동원하야 진찰에 노력하엿다

義州邑供饋米 二日間六石七斗

【義州】긔보=의주공립보통학교에 수용된 이재민과 어적도(於赤島)에 그대로잇는 재민들에게 지난삼일로부터 량일간매일 읍내유지들이 대미이석오두반과 소미사석일두반 합계륙석칠두라는바 그밧게 의주경찰서와 주내(州內)면에서 공휼한것도 적지안타는바 하휼의일이 아니나마 못잇는인사의 만곤동정을 비한다고한다

渾河水氾濫으로 同胞營農이 全滅

浸水家屋도 一百七十餘戶로 今後의 生途가 暗憺

【撫天】최근 련일나리든 호우(豪雨)로 인하야 전만가지에서 농작물은물론 인축에까지 상당한 손해를당하고잇슴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혼하(渾河)류중심으로한 무순(撫順)일대에는 혼하강북편의 동포촌락 일백칠십칠호의 가옥(家屋)침수를비롯하야 금년동안을예상하든 부근오천류백여일경의농작물은 전멸상태에 이르럿다는바 수란동포는 림시 당지만주국공학와교 일어학교에 류백여명을수용하고 당지조선인 협화청년단(協和靑年團)의 식량배급 위생등의 만찬한활동을 비롯하야 만주국현공서 시민구제회 등에 구호를밧고잇다는데 그들의 금후 생계는망연하다고한다

閉鎖九個月만에 明信學院遂認可

開校準備에 奔忙中

【安岳】황해도 안악군 동창포의 유일한 무산아동교육긔관인 명신학원(明信學院)은 소화삼년십월부터 당지긔독교청년회의사업으로 개설하고 그동간 칠년동안이나 문맹퇴치에 로력하여 그성과로 삼백여ㄷ동의 문맹을 면케하야 동창사회에 칭송이 자자하든바 지난소화구년십월에 이르러서는 돌연히 당국으로부터 인가업다는 리유로 인하야 폐쇄명령을 나렷든바 당국자들은 계속활동하야 지난십월에 허가원을 당국에제출하엿든바 폐쇄한지 구개월이지난 이십칠일부로 인가되엿스므로 방금개준비학에 분망중이라한다

◇寫眞Ⅱ(上)收容所에 收容中인水害罹災民의 食事하는 光景 (下)本社義州支局員이 災地九龍、於赤兩地災民慰問次出發光景(義州)

瀛州町에 火災 一棟二戶全燒

【釜山】지난삼일 오후 오시경 부산부 영주정(瀛州町)시장부근인 안전자동차부(安全自動車部)에서 발화하야 이웃 영옥양복점(永玉洋服店)에 연소하얏는데 경관대와 소방조원의 필사적노력으로 일동이호를 반소하고 동오시사십분경에 진화 하얏한다 원인은 안전자동차부 조수가 자동차에 개소린을 넛타가 잘못하야 발화한것이라하며 손해는 방금 조사중인데 장소가 시장부근이고 또 저녁장볼때라 그일대는 대혼잡을 이루엇다한다

專賣工場竣工 一日부터作業

【平壤】공비 오십만원의 거액으로 서평양의전에 건축중이든 평양전매지국(專賣支局) 공장은 총건평 이천류백평의 광대한 현대식 공장으로 이즘 완성되여 일일부터 조업을 개시하엿다고한다

南鐵第二期線 起工促進大會

沿線各地代表會合

【長興】지난이십오일 오후한시부터 장흥읍내 공회당에서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령암 영산포 목포 려수각부군 대표가 회합하야 남철제이긔선 긔공촉진련합대회를 개최하고 이목적을 달하기위하야 긔성회규약을 작성한후 운동방침으로는 련합대회에서 위원을 선정하야 팔월오륙일경에 상경하야 관계당국에 진정하는동시 도의원을총경에 파견하야 남철사장 근진씨에게 진정하야 목적을 관철하기로 결의하고 오후여섯시에 폐회하엿다한다

制限給水緩和

【元山】요지음 작열지옥화한 원산은 마다믈의 수요량이 격증되는반면에 수도의저수지(沈澱池)의저수량이 격감하게되미로 지난이십오일부터 원산부수도게에서는 제한급수를 실행하얏다 함은임이보도한바이어니와 지난이일까지 매일여덟시간의 단수를 하든일……

群山商工會議員 九月一日에改選

【群山】군산상공회의소(群山商工會議所)에서는 오는 구월일일로 의원을 총개선하기로 되바 선거에 의원은 십팔명에 유권자는 총수 사백사십사명에 조선인 백십일명 즉 삼대일의비례라한다。

丹山公普校位置 三個里住民反對

五十餘名이 運動方針을協議中 七名은警察에被檢

【榮州】경북 영주군 단산면(丹山面)은 아즉 보통학교가 업섯든바 금번 경북도의면일교제 실시에 따라 지난칠월초순경에 경북도에서 공보교가인되여 임시로 가교사(假校舍)까지 어더서 만반의 준비를 착착진행하는동시에 신축할 학교기지는 단산면병산리(屛山里)로 결정되엿든바 전긔결정된 기지는 동면의 중앙지임에도 불구하고 동면 마락、좌석、옥대(馬落、佐石、玉帶)등 삼동은 거리관계상 위치를반대할 동면장 서정제(徐廷濟)씨에게 여러번 반대의사를 전하여오든바 지난칠월이십륙일에는 전긔동민오십여명이면소압에 모여서 무슨협의를하고잇든중 미연에 경찰의 탐지된바 되어그중 오근배(吳根培)와 임대순(任大淳)외 다섯명은 검거되고 남은군중은 모다해산을 당하엿든바 동일오후에동면장서씨 뢰사하는 틈을 타서 군중 십여명이 몰여와서 먼저의 결견한리유를 질문하자 경계하든 경관에게 또두명이피검되야 일시는 대소동을 이르켯는데 피검되엿든이명은 계속취조중이라한다

溜池서沐浴타 少年二名溺死

【蔚山】지난삼일 오전열시오십분경 부내대신정이백일번지 전승오(千承五)의 장남 한수(漢守)(七)와 동정이백오번지 최용수(崔容洙)의이남 중리(重理)(七)는 동정일백사십칠번지 청부업자 비호(飛戶)씨의 인부가 벌(滯)에 드러가 목욕하다가 익사하얏다 장치된 공사를하고잇든 류지(溜池)……

東中線廣改工事 蔚山兵營서着手

【蔚山】대구서 울산까지 부산서 좌천(佐川)까지만 개통하고잇든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은 완전히 개통하게되엿다는 금번 신이형내로는 완전히 개통될것이라하야 더구나 울산군민은 매우깃버하고 잇든중인바 지난달에는 광궤개량공사(廣軌改良工事)를 경영 산본조(山本組)가 이십팔만원에 락찰하야 울산병영(兵營)에다 사무소를두고 병영、호계(虎溪)간에 공사를착수하엿는데 지방으로서는 밤서부터활기를띄고잇다한다

魔의昭陽江서 學童一名溺死

【春川】벌써이 다수한 인명을 희생시키는 마의 소양강(昭陽江)ㅡ금번의 처희생자가 지난이일에 생겻다 춘천공립보통학교 제사학년 생 수영이 다엿살된 조전(篠田)씨에게 인솔되여 전긔소양강에서 수영(水泳)을하든중 인솔자의 부주의로인하야 아동을 널분장변에 각자로 방임(放任)한결과 오후네시경에 집으로 도라오려고 인명수를 조사하얏든데 정촌차남(正村次男)(一二)이라는아동이 행방불명이엿섯다 그리하야 일시대소동을 이르키고 물속을 조사한결과 오후여섯시경에 시체를 건젓는데 일반은 이원인이 인솔한 당임훈도의부주의한결과라고 비난이 자자하다고한다

白晝에「늑대」出現 十歲少女를咬殺

楊州郡檜泉面에서

【德亭】백주에 늑대가 출현하야 소녀를 물어죽인 참극이 양주군하에 발생 하얏다 지난일일오후 네시경에 양주군회천면옥정리(楊州郡檜泉面玉井里) 박홍수(朴弘洙)의 둘재딸 정구(貞九)(ㄴ)라는 소녀가 압산으로 버섯을 따러갓다가 틈현 송아지만한 늑대가 낫타나 물고가는것을 가티갓든 부녀들이 발견하고 소동하야 동리사람들이 쪼처가 소녀를 빼아섯스나 원체 몸이 전신에 교상(咬傷)를 당하야 무참히 도죽사 하얏다는데 백주에 늑대가 낫타나 이와가티 참변을 내엿슴은 드문일로 부근에서는매우 불안과 공포중에 잇다한다

鑛夫一名溺死

【鐵山】지난칠월삼십일일오후부터 평북 철산군부서면철곶포(扶西面鐵串浦) 압바다에서 신의주로부터 류하목 수백주가 표류하므로 어항부근에서 광부가 바다로 달려가 류하목을 잡으려다 그만 물결에 휩쓸려 무참이 죽어버렷다는데 그는원적을 귀성군관서면조악동(龜城郡館西面造岳洞)에 둔 백중옥(白仲沃)(ㄴ)으로 금광에서 광석을 채취하든중이라한다

地方人事

▲鄭殷和氏(慶北道產業技手) 榮州林業保新任人事次本社榮州支局來訪

▲文順坤氏(豐山砂防手)榮轉人事次 去二日午後三時에本報豐山分局來訪

昌寧 南朝鮮庭、蹴球大會

▲時日 八月十日(庭球)十一、十二日(蹴球)

▲場所 郡廳코-트 普通學校運動場

◇主催 昌寧留學生學友會 昌寧庭球俱樂部

◇後援 朝鮮日報昌寧支局

鐵山 講演과音樂會

▲時日 八月十七日

▲場所 鐵山公會堂

◇主催 鐵山留學生會

◇後援 鐵山體育會朝鮮外三支局

라디오푸로

四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안데르센先生死後六十年記念이야기 안데르센先生의生涯 李軒求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마음밧과그씨 基督申報社長 全弼淳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五五分 (東) 國內放送 日獨國際放送

◇同八時 (東) 獨逸로부터 一、올림픽벨 二、스포-츠謝演 第十一回올림픽大會 組織委員長(獨語)레오도르·레왈드(日本語通譯) 올림픽大會名譽會長(佛語)피에르·드·쿠벨탕 日本語通譯 獨逸體育協會評議員(獨語) 카-ㄹ·디-ㅁ日本語通譯

◇同八時三〇分 (東)(獨逸로부터)音樂

◇同九時 (東) 國內放送

◇同九時一分 라디오·코메듸 流線型結婚生活 全景(配役) 모던뽀이……李福本 그의妻……金春雨 그의동무……盧載信 개똥어멈……金吉順 서울·무랑·루주 演出 李基世 効果 効果班

◇同九時四〇分 悲心歌外 一、歸山來偶 二、悲心歌 三、역금 四、孔明歌 崔貞子 金玉仙

五日(月曜)

◇午前九時五〇分 第九回全國都市對抗野球大會實況…明治神宮外苑野球場으로부터…京城府廳發送……

◇午後六時三〇分 안데르센童話 崔泳柱

◇同六時五五分 產業뉴-스 經濟解說 朝鮮日報編輯次長 咸尙勳

◇同八時 農村講座(一) 農業時事 金雄珏

◇同八時三〇分 音律 一、鄉唐交奏 二、吹打 奚琴 池奉石 大笒 金一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同九時 映畫이야기『사랑조흔仙女』 李承雨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이林塘水로나가는데 金昌龍 鼓手 韓成俊

六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一) 心田啓發은戒愼 張義永

◇同八時 農村講座 農業時事 金雄珏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나의죽엄 메르쿠레지作曲 二、가장사랑하는이 쿠루작曲 三、내한숨 스트라델라作曲 四、放浪客 슈-버-트作曲 五、擲彈兵二人 슈-망作曲 六、아베마리아 루깃作曲 金文輔伴奏 金永煥

◇同九時 旋山歌外 一、旋山歌 二、제비가 三、寧邊歌 四、노래가락 五、창부타령 林明月 千花鳳

◇同九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春香歌中 御使南原내려가는데 吳太石 鼓手 池龍九

曆

八月五日(月) 舊七月建癸未(大)初七日 癸丑·木危破

▲立秋 八日(舊七月初十日)

▲末伏 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 (廿四日舊七月廿六日)

그女子의一生 (174)

春園 作 夕影 畵

망명편

망진이가 간뒤로 금봉은 울었다。

「아비업는 자식이로고나」

하고 우는 갓난이 소리를 가슴 아프게 드럿다。 그리고 정선을 나을 때에 손선생이 밤새도록 듣릭듣릭 애를 쓰고는 난 어린 애를 보고 깃버하던 양을 생각하엿다。 이것이 남편의 아들이면 얼마나 깃버할까 이 아이가 한달만 일쯕 낫서도 손의 씨라고 할수도 잇지만는 손의 씨라기에는 넘기어도 나가는젓다。

하로 종일 누구 나하 틈어다보는 사람도 업섯다。 오직 간호부와 즈끼소이가 속은주은이야기를하고 잇슬 따름이엇다。

금봉은 학교에 잇는 동생 은봉을 부를까 생각하엿스나 은봉은 벌서 졸업식을 마치고 어드로 간는지를 모른다。 신문에는 졸업식날 은봉이가 졸업반을 대표하여서 답사를 하엿다는 말이 나고 야뿌한 모자에 까운을 입은 은봉이를 졸업생 일동의 사진에서 차자내어서 울던것을 생각한다。 인제는 금봉은 은봉에게 비겨서 말이 못되게 천하여지고 설명업서진것을 생각할 때에 금봉은 동생에게 대하여서도 일종의 질투를 느꼇다。

『옵바는 어듸로 가섯나?』

하고 금봉은 인현을 생각한다 수녀가 되거나 시골로 가거나 하라던 인현의 말이 생각힌다 그 사람과 그 정성、그것을생각하면 금봉은 한량업시 슬펏다。

『옵바 말슴이 올핫던것을』

하고 금봉은 그후 일년간에자긔가 얼마나 더 지옥을 향하고 떨어젓나를 생각해본다。

『불의엣 일시적 쾌락과 뼈가 녹는 지옥의 고통』

하고 금봉은 지나간 일년의생활을 돌아볼때에 지긋지긋하고 소름이 끼친다。 후회와 원망과 질투와 허욕과 거긔서 오는실망과 불안과 ─ 이러한 감정으로 지글지글 히는 생활이지 옥생활이 아니면 무엇이랴。 게다가 아모리 압흘 내다보아도 희망의 빗은 하나도 업섯다。 모도 후앙 ─ 참으로 후앙지옥이엇다。

『옵바는 선지자시다。』

금봉은 이러케 생각한다 ─

『옵바는 내 압길이 이러한줄을 미리 아시고서 나를 이지옥에서 건지라고 하섯건만은、내가 이 세상에 온것이 너하나를건지거나 그러치아니하면 너때문에 여러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운명이라고까지 하시던것을」

하고 금봉은 인현의 말을 듯지아니한것을 후회하엿다。

『옵바、옵바!』

하고 금봉은 밥무의식적으로 소리를내어서 불럿다。 간호부가 깜작 놀라서 금봉을 흔들엇다。 금봉이가 눈을 뜨는것을 보고야 간호부는 안심한드시 머리를 만저보고 제 자리에 돌아가 안젓다。

금봉은 다시 눈을 감앗다。 몸은 푹 깔아안저서 땅속으로 들어가는것만 가튼데 정신은 훙분한것도 아니오 희미한것도 아니면서 꿈과 상시와 사이로 오락가락하엿다。

인현이가 머리를 새파라케 밀고 검은 장삼을 입고 합장하고 섯는 양도 보이고 손선생이 눈을 멀뚱멀뚱하고 금봉의 머리 마테 섯는 양도 보이고 어머니가 전신에 물을 쪼르르 흘리면서 울며에서 나오는 양도 보이고、또 금봉이가 동경 ○학원 긔숙사 긔도실에서 자리옷 바람으로 꿀어안저서 옥중에잇는 임학재를 위하야 긔도하는 양도 보엿다。

『나는 어듸로 가는고? 장차 어듸로 갈것인고?』

하는 생각이 번개가티 번뜩 가다 금봉에게 뎀벼들기도 하엿다。

사흘이 되어도 젓이 한 방울도 도지지아니하엿다。 다니러왓던 할멈은、

『미억국을 안잡수서서 그래요 미억국을 잡숩고 미역국으로 젓을 씻어야 젓이 도는데』

하고 미역국을 끌여오기도 하엿다。

사흘재 되는 날 아츰에도 광진이가 왓다。 소나무와 시네라리야 화분을 들리고 백합은 제가들고 와서 방을 장식해노앗다。 이 날은 어린애를 처음어도 보고 웃고 이야기도 하엿다。 그리고 유모를 구할 걱정도 하엿다。 그러나 한 십분이나 잇다가 가버리고말앗다。

금봉은 간호부에 대한 면목이 좃치안앗다。 그래도

『이애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안 계서요?』

하고 물을 때에는 금봉은 낫체 모닥불을 담아붓는듯하엿다

천하진미

무어니〱하여도 아지노모도를처서요리한음식이야말로 천하의 진미입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8-4

蛔虫驅除하는데맛잇고잘듯는 산독이 날과자 珊篤尼涅菓子

蛔虫이寄生하야배가압흐고熱이나고가슴이압흐고애들이밤에울고안자는때는 산독이날과자 珊篤尼涅菓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七百圓以上金融 一絕對秘密嚴守一

電話賣買

京城電話仲買店 電話光化門二九七九番 東一銀行下側

蔡·姜二大歌手컴비로된 힛트盤 再現!!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蔡奎燁 故鄉을차저가니 姜弘植

레코-드番號 四〇六二三

製造元 九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콜럼비아레코-드

八月四日より短期公開 階下席 十錢均一

大都映畫特作現代映畫 原作…松波三郎 監督…太田辰三 琴糸路、島田文郎主演 彼女の半生 甲賀三郎、久松玉城 遠山龍之介、琴路ミツ子共演 淸水明谷 定子

ウイリアムフオツクス特作日本版 フランクロイド監督作品 名優エリツサランテイ主演 地獄特急 ポールルーカス アレキサンダーアークランド共演 ワーナーオーランド

この世から見離され樣に世界の人人から忘れられたかの樣なロモツコの外人部隊に起つた灼熱の愛と獵奇のローマンス

大都超特作本格時代映畫 惑星海江田讓二代表作品 原作…小狸一平 監督石山稔 血吹雪名槍傳 海江田讓二主演映畫 篠間冴太郎、月宮乙女 都健太郎、東龍子共演 大岡怪童、千代田綾子

元祿の快擧吉良邸討入の夜褒憎の名槍血吹雪に翻る痛快兒鹿里五番 閃閃…血河白雪を蹴る大劍陣

櫻井町 本局(全) 大正館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番

祝朝鮮日報社高城支局發展

東海北部線高城驛前

江原道產優良赤松原木各種直營斫伐輸移出及朝鮮內都賣散賣業

善益木材商會

主 車善君

補血強壯

新藥 ロクミン

早老及老衰期障害인

精力減退 記憶力減退 倦怠感 性衰弱等男子의一般老衰現象의豫防及生殖器 性神經衰弱에 가장有効함

性『호루몬』을助長하야元氣不足한肉體를健强케할수잇는

性의補强療法

오날까지 性機能을 强健케하다는 補劑藥이 마치마는 實在로 効果를어들만한藥은 몃가지가되지못하얏슴니다。 間或잇다 하더라도 一時的興奮劑가만하 副作用이甚한 關係로 도리혀 衰退를 助長하는 危險이적지아니하얏슴니다。 本『로구민』은 其性質이 全然달나 性機能에가장 適切한 有機性化合物이充分히 包含되야잇서 直接으로 性機能에補給되야『性ホルモン』을 促進케하는 關係로早老나 氣血不足이自然治療되며心身虛弱이 完全히恢復되야 健壯한몸이될수잇슴니다 더욱 이効力이놀나울 만치的確함뿐아니라 永續性이 豊富하야 永久히健康을 持續할수잇슴니다 類다른 他種藥品과如히副作用이 絶對업는것은 本『로구민』이唯一의 特殊한特症일뿐아니라 또한 자랑이올시다 現時 誇張한廣告로販賣하는 藥과는 全然다르오니 性衰弱으로煩悶하시는분은 早速本『로구민』을 服用하시와 生生하고 潑溂한肉體를 맨드심을 바람니다

効能

補血强壯（身體瘦瘠하고 顔面이蒼白하고 虛汗이甚하고 貧血된사람이나 氣力이업서 眩氣가나고 不眠症이有하야 心身이虛弱한사람에게는 가장適當한 藥이올시다）

心身虛弱（神經衰弱이되야 밤마다 盜汗이나고 힘든일을할때는 眩氣가나며 공연이 몸이倦怠하야 꼼작도하기시른 症勢가잇는분에게 둘도업는良藥이올시다）

腎衰精竭（老少를勿論하고 腎氣不足하야 陰萎不起하며 手足厥冷하고 腰痛膝冷하며 性的生活에不足을 感하시는분에게는 實로最善에良藥이올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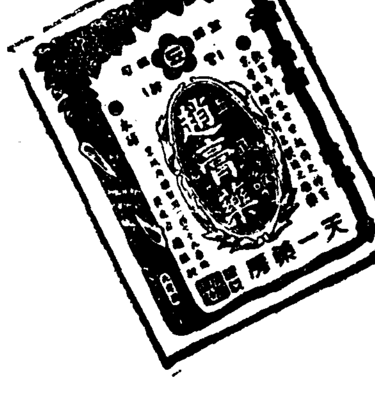
食慾不振（卒然이 口味가업서 食事를 못하시는분이거나 産前産後口味를 일으신분이거나 病後恢復期에잇서 口味가떠러지신분에게 가장適合한 藥이올시다）

藥價 五〇〇瓦入……金三圓也
送料……一瓶……三十四錢

五大醫學博士의證明

水原道立病院外科科長 醫學博士 金河橙 先生
前京城醫專教授 京城帝大講師 京城醫藥研究會長 醫學博士 朴昌薰 先生
醫學博士 申弼浩 先生
安國醫院院長 醫學博士 任明宰 先生
醫學博士 金光鉉 先生

腫症仙藥 趙膏藥



主治効能

모든종창부스럼 諸般腫瘍 모든습종 諸般濕腫
유종 乳腫 담종 痰腫
담결니는데 痰結 발지 疔腫
구창 久瘡 낙상 落傷
거혈 瘀血 견비 肩臂
요통 腰痛 그타무명종독등 其他無名腫毒等

藥價 五錢 十錢 二十錢

趙膏藥 天一靈神丸 本舖

發賣元 天一藥房賣藥部

京城府禮智洞
代表電話光·長·二〇五〇番